쇼호지 절

쇼호지 절은 붓포지 산기슭에 위치한 선종 사찰로, 가을 단풍 명소로 유명합니다. 11 월 경내에서는 입구 근처를 중심으로 단풍나무들이 붉은색과 주황색으로 물드는 선명한 단풍을 볼 수 있습니다. 일 년 내내 진달래, 붓꽃, 사라쌍수 등과 같은 꽃들이 나무로 덮인 산기슭에 색을 더합니다.

쇼호지 절에 따르면 처음에 이 사찰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사카 신노(728~744 년)를 애도하기 위해 744 년에 창건되었다고 합니다. 현재의 절은 17 세기 중반에 붓코지 성주였던 다무라 씨가 세운 것으로, 고미즈노 천황과 결혼하여 와즈카의 토지를 하사받은 도쿠가와 가즈코(도후쿠몬인, 1607~1678 년)는 이 절의 중요한 후원자 중 한 사람었습니다.

경내에는 교토부 지정 유형문화재가 2 개 있습니다. 하나는 교토 센도 고쇼에서 옮겨온 산문이고, 또 하나는 아미타여래상을 모신 불전입니다. 그 외에도 경신신앙의 신을 모신 경신당과 여행자와 어린이의 수호신인 지장보살을 모신 지장당이 있습니다. 그 2 개의 당 옆에는 12 간지 동물을 각각 하나씩 안고 있는 비교적 새로운 둥근 얼굴의 지장보살상이 12 체 있습니다.

불전에는 도쿠가와 가즈코가 기증한 자비의 보살 성관음상이 모셔져 있습니다. 참배를 하고 싶으신 분은 사찰 직원에게 문의해 주세요.

오시는 길

‘와즈카야마노이에(和束山の家)’ 버스정류장에서 하차 후 큰 교차로에서 좌회전 도보 약 8 분